

‘1% 사랑나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조영택 장관)은 추석에 맞아 소년 소녀가장들을 초청해 9.14(수) 1% 나눔운동 성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재단과 불우이웃돕기 결연을 맺었다.

- 많은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3개월전부터 자발적으로 매월 월급에서 1만원정도를 떼어 1% 나눔운동에 참여하였는데,
-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미래의 새싹인 소년소녀,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꾀꾀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을 매월 조금씩 지원키로 하였다.
- 지원대상자는 인근 구청으로부터 후보자 9가구 소개를 받은 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새미래를 이끌 소년 소녀가장 4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번에 각 가구당 40만원을 전달하고 앞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1% 나눔운동에 보다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직원의 성금 모금액에 비례하여 부처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s)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는 국정평가인프라구축 자문위원들께서 처음으로 43만원의 매칭그랜트를 해주셨다.

❖ 아직 1% 사랑나눔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분들도 적지 않은데 여러분의 월급에서 매월 1만원정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시 약 12만원이 환급되어 사실상 금전적 부담없이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게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은 사회복지정책심의관실 진선미 실무관에게 전화(구 2273) 또는 메일(jenny@opc.go.kr)로 참여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새미래

1%나눔운동 행사를 다녀와서……

창문여자 고등학교 3학년 장 소 희

안녕하세요?

창문여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임과 동시에 건국대학교 정치대학에 수시 1학기 전 형에 합격한 장소희입니다. 저는 5살 때 미아동에 위치한 “슬기의 집”에 맡겨져 작년까지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전에는 큰 아버지 집에서 있었는데 큰 아버지께서 ‘서울역’에 갔다 버리라는 말에 어린나이였지만 상처를 많이 받아 지금까지도 아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큰 아버지의 성화에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시설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초등학교 때에는 시설에 함께 있는 언니, 동생이 모두 성이 달라 친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도, 친구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결국 절 고아라고 놀려 대며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6학년 때 까지는 꾸준히 학급 임원으로 친구들을 리더하는 나름대로 활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학급 임원 선거에서 전 한 표 차이로 부회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다녔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1학기 회장을 통해 “소희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수업을 끝나고 학급에 남아서 학급일을 도울 수 없으니 네가 소희를 뽑으려는 아이들에게 잘 설득 해봐라”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전 이 말을 1학기 회장을 통해 들었고, 그 친구는 저에게 집안에 무슨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전 찢었던 힘까지 동원해서 목까지 차오른 눈물보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 ‘절대 울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부터는 저는 잘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슬기의 집 원장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절 위해서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싸우기도 하시고 그 일이 있고나서 한달동안 입원해 있을 때에도 옆에서 정성껏 간호해 주셨습니다.



9월 14일 국무총리실에 초청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4세대 중에서 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정부 종합 청사에 도착해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조용하고 엄격한 분위기에 긴장했지만, 로비에서 웃으며 맞이하신 선생님을 보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음료수와 과자를 주시면서 다정다감히 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마련해 주신 성금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금 전달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까 꿈이 외교관이라고 말씀드렸던 일을 기억하시고 건물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 건물을 설명해 주시면서 실력있고 멋진 외교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사주셔서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피자과 돈까스등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하게 될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등 값진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따뜻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물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러모로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 희망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미래

1%사랑나눔 행사를 마치고...

9. 14은 우리 직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1%모금운동)을 소년 소녀가장을 초청해 전달하는 뜻있는 날이었다.

처음이들을 초청할 당시만 해도 이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해줄 것인가도 문제였고, 혹시 이 행사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초청한 소년소녀 가장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때 그것은 기우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티없이 맑고 밝은 표정을 간직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니 오히려 부끄럽기 까지 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하는 질문에...

혜○(창덕여중 3년)이라는 녀석이..

“난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미용고등학교를 입학할 거예요..”

장래 희망이 헤어디자이너라며 소박한 꿈을 밝혔다. 이때 혁신팀장이 “그래 좋은 꿈을 가졌구나. 네가 헤어디자이너가 되면 나의 전문 헤어디자이너를 해줄 수 있니?” 라고 묻자 함박웃음을 지었다.

혜○이 동생 혜○(창덕여중 2년)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묻자, 자신있게 “난 모델이 되고 싶어요...”

“그래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소원을 이루어라..”

이번에 고3인 소○는 수시전형으로 성대 정외과에 합격한 학생이었는데, 그 녀석은 외교관 아니면 어나운서가 되는게 꿈이었다.

이때 초등생인 소니가 새미래팀장인 이창수과장의 코를 만지며 “아저씨 코 수술했어요?” 라고 묻자 우리 모두 폭소를 터트렸다.

이런 티없이 맑은 장난에 아니 즐거울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 크리스마스때도 한번 불까?” 라는 제안에 소○의 동생 유○가 “아저씨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지요?” 라는 말에 눈물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 거렸다..

“그럼 주고받고, 뭘 갖고 싶은데?”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과자..” 라고 대답한다.... 우린 다시 눈사울을 적셨다...

이렇게 작은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겠는가?..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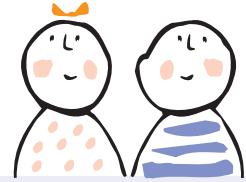
헤어지면서...

우리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다음에 또 봐요..”라면서도 헤어지기가 서운했고 아쉬운 표정들이었다...

이 어린 소년소녀들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길 빌며.... 새미래



소년소녀가정 소개(요약)



※ 소년소녀가정 소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김00(여중 3학년), 김00(여중 2학년)

- ▶ 중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조모와 생활하고 있음
 - 학생의 母는 10년전에 가출하였으며, 父도 03년도 중순경 가출하여 현재 연락두절 상태임
 - 학생의 아버지가 광주에서 살다가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조모에게 맡기고 가출하였으며
 - 조모 또한 고령(70세)에다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지원이 필요함
-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함

2. 김00(초등 5학년), 김00(초등 3학년)

- ▶ 현재 父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父가 불링기계 부품사업을 하다가 IMF때 부도가 난후 97. 5월 이혼
 - 그후 불링장 & 막노동 등을 하다가 현재 실업상태로 소득이 없고 카드 등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
 - 김00학생은 안구돌출, 정신지체 3급과 갑상선 기능이상 및 간질증상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나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현재 보충금 50만원에 월 10만원 셋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함

1. 장00(여고 3학년)

- ▶ 호적상으로는 백부의 자로 등재되어 있음. 父와는 연락이 끊기고, 母는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임
 - 백부집에서 생활하다 백부집의 사정으로 미야동 비인가시설에서 가정위탁보호를 받아오다 성북구로 이사오게 됨. 현재 비인가시설에서 알던 동생과 함께 둘이 거주하고 있음. 부양의무자 없고, 18세 미만으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1. 강00(고 1학년)

- ▶ 부모가 사망하여 그동안은 할머니가 자주 왕래를 하며 돌봐주셨지만,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음. 누나는 현재 대안학교 재학중

혁신을 위한 '전략적 사고'

9월에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님께서서는 우리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전략적 사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국가전체를 조망하다 보니 자연히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개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부처의 경우 해당 정책이 자신의 고유 업무이다 보니 자연히 책무성도 강하고 여론도 민감하게 체크하며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국무조정실의 경우 양 기관의 가운데에 있는 기관으로서 전략적 사고가 다소 떨어지니 직원들은 유념해 전략적 사고 능력을 끼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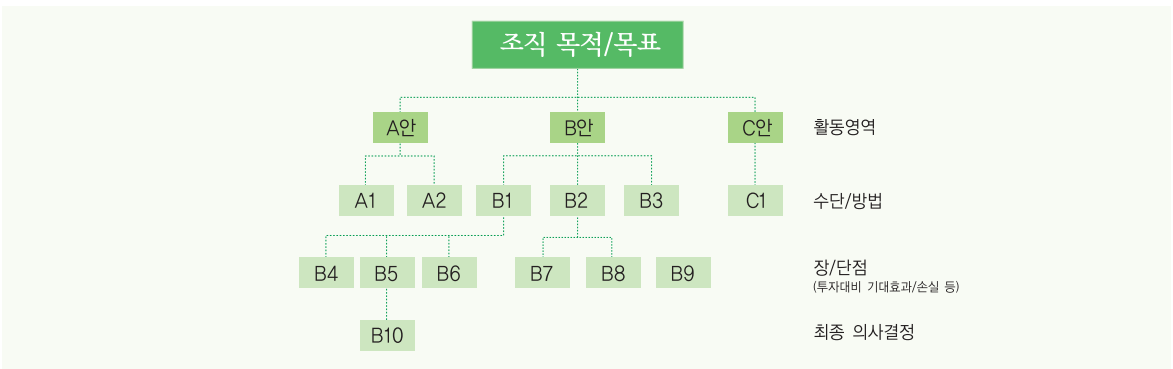
I. 전략적 사고의 의미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란 경쟁자를 다루는 기술이다. 기업 활동, 정치, 스포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나름대로의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경쟁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전략을 가진 경쟁자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전략적 사고는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과 경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그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적 사고를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행동은 경쟁자의 행동, 경쟁 상황의 특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및 자원을 바탕으로 최상의 선택, 즉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II. 전략적 의사 결정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 사고는 다음의 4가지 정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 첫째>> 각각의 의사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거꾸로 분석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 둘째>> 경쟁력이 있는 우위전략을 파악하여 경쟁자의 의사결정에 관계없이 항상 우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셋째>> 경쟁력이 부족한 열등전략을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역효과 및 오폭의 가능성을 제거한다.
- 넷째>> 우위전략적용과 열등전략제거로 안정된 상태에서 공개된 경쟁자들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III. 전략적 경영의 예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기업경영에 응용하는 것이 전략적 경영이다. 기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1) 기업의 핵심역량(강점)이 무엇인가, 2) 기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그만 둘 것인가, 4) 어떻게 경쟁자와 경쟁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며 이것이 전략적 경영이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

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반도체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고위험 사업이다. 당시 국내 재벌 총수들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미국, 일본의 최고기업도 힘겨워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이 회장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말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장래 유망 사업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높아 반도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삼성 그룹이 소비재 사업에서 탈피 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에게 이진희 회장은 느닷없이(?) "10년 후에 무얼 먹고 살 것인가"를 연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회장은 10년 전쯤에도 비슷한 지시가 있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어라"고 일갈하였다. 지금은 잘 나간다 할지라도 10년 후에는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며 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시는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말이다.


■ LG 그룹



LG

십 수년 전 LG 그룹의 기업이념은 "인화 단결"이었다. 서로 다투지 말고 단결하여 열심히 일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은 남의 기술을 빌려와서 생산·수출하는 체제에서는 적합하지만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즉 인화 단결만 해서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 그래서 LG 그룹은 기업이념을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 경영"으로 바꾸었다. 기술을 우리 스스로 창조하려면 인재를 육성,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 미국기업의 경우

10년 전쯤 미국의 유명 기업체가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다. IBM, Sears Roebuck, GM이 그들이다. 이익률이 좋은 대형 컴퓨터만 고집하다가 Apple 등 소형 컴퓨터에 당한 IBM, 값싼 물건을 찾는 고객은 우리에게서 가치가 없는 고객이라고 무시하였던 당시 소매업의 일인자 Sears Roebuck이 할인점 Wal-Mart에게 1위 자리를 내 주었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고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다"고 거만을 떨던 GM은 일본 등 저렴한 외국 차에 밀려 미국 내 많은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이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 모두 변화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한 전략적인 실패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Peter Drucker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Do the right thing than to do things right".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부적절한 전략)를 잘 수행하는 것보다 적절한 업무(전략)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소식

○ 혁신을 위한 보고 방식 효율화 추진

- 보고효율화 방안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 혁신팀에서는 보고효율화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면보고/상향보고 과다 등 보고와 관련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장관님께 보고 드리고, 보고효율화와 관련한 장관님의 방침을 확정하였다.
- 대면보고의 원칙적 폐지
 - ⇒ 일단 국장급 이하의 대면보고는 원칙적으로 폐지(조정관 이상은 제외)
 - ⇒ 따라서 서면보고/전자보고/전화보고(간략한 내용의 경우)를 적극 활용
- 보고예약제
 - ⇒ 부득이하게 대면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보고자와 취지 등을 비서실로 통보하고 대면보고 여부 및 보고 시간을 지정 받은 후 대면보고

장관님 말씀

① 원칙적인 대면보고는 폐지
- 총괄심의회 ~ 전직심
, 또는 전직심 키우
(부처지음은 줄임말이
취지. 그리고 모든 전직)

② 대면보고는 필요한
사항은 事務申請原則
(비서관이)
→ 비서관에서는 취지제하여
보고시간을 줄인
기 때문에 지정된 비서관에게

○ 전자화상회의를 통한 혁신추진



- 우리실은 회의문화 혁신을 위하여 전자문서회의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조정관 주재 국장급 회의, 총괄심의회 주재 주무과장 회의 등 간부회의에 주로 이용되었다.

- 이번에 실무자 회의에 이용되기에는 처음이다.(9. 27(화) 15:00)

-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실에서 주재하는 어떤 회의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화상회의가 오프라인상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실제 모여서 하는 거의 모든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회의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

기 때문에 회의 참가자 만족도 또한 크게 나타났다.

- 이제 우리실에서 하는 회의는 가능한한 전자문서회의(화상회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한다.
- 전자문서회의를 이용하고 싶은 직원 분들은 혁신팀으로 신청해주시면 혁신팀에서 설치에서 운영까지 모두 도와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하반기 혁신추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 '05년도 국무조 정실 혁신추진상황 점검 및 혁신 추진주체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혁신팀과 각 부서 혁신추진팀원들의 새로운 추진동력과 자신감을 찾고자 혁신추진팀 워크샵을 추진하였다.

• 개요

- ⇒ 일시 : 2005.9.8(목) ~ 9.9(금) <1박2일>
- ⇒ 장소 : 경기도 양평군 대명콘도
- ⇒ 참석 : 혁신팀, 각 부서 혁신추진팀, 주니어보드, 공통혁신과제 담당자 등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으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① POSCO 경영 혁신 사례 특강(조청명 포스코 혁신기획실장)

조 실장은 포스코 직원들의 위기의식과 6시그마 운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조실 혁신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직원들은 혁신추진팀 워크샵답게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등 혁신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② 혁신을 위한 긍정적 사고와 신념 배양을 위한 체험 학습

자신의 내면에 가득찬 자신감과 신뢰, 열정, 사랑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 하였으며, 송판격파와 숯불걷기를 통하여 무한한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 숯불걷기 장면



○ 송판격파 장면

○ 회의 혁신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

- 우리실 9월 혁신의 날 행사는 Edelman Korea 김호 사장을 모시고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커뮤니케이션 법칙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가졌다.(9. 28 (수) 16:00)
- 회의 운영방식 개선은 '04년도 우리실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1/4분기 혁신평가시 장관님께서 회의운영 효율화에 집중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 특히, 우리실 특성상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이번 혁신의 날 행사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 김호사장은

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 ⇒ Before :회의하기 전 준비시간이 회의시간보다 짧으면 실패한다.
- ⇒ After : 회의후 “회의따라잡기(follow-through)”를 하지 않으면 회의 한 것이 모두 꽁이다.
- ⇒ At :회의전 준비 + 회의후 “따라잡기”가 제대로 되면, 회의는 잘되게 되어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 브라운백 미팅 개최

- 경제조정관실(9. 28, 수)
 - ⇒ 스토리텔링시대가 오고 있다(홍사중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 의정심의회관실(9. 29, 목)
 - ⇒ 국무조정실 멘토링 첫 번째 시리즈(기획차관님과 함께...)
- 사회문화조정관실(9. 30, 금)
 - ⇒ 세계적 관점에서 본 양극화(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새미래

Innovation 과 JB (주니어보드)

혁신과 주니어보드에 대한 의견으로 주니어보드 초임병의 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산업심의관실 권혜린〉

▶ 혁신은 왜 하는건가?

기업들의 경우 생존이 달린 문제이겠고, 공공부문의 경우도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된 화두입니다.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의식적인 활동은 유기체의 기본적인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조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혁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혁신을 추진해가도 주변의 분위기와 압력도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겠지요.

▶ 혁신하면 뭐가 달라지나?

개인적으로 경직되기 적합한 아니 경질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기존의 관행·관습에 대한 의견의 자유가 조금은 넓어진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위기 또한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우리실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혁신의 날 행사를 통해서 유명인사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점,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설문조사를 자주 실시된다는 점 등이 아닐까요? 물론 혁신이란 업무가 추가된 단점도 있지만... 일명 혁신 피로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주니어 보드가 뭐하는 곳인가?

주기적으로 날라드는 혁신퀴즈 메일, '새미래' 소식지, '1%나눔 운동에 참석합니다'는 문구 이런 것들이 울타리 밖에서 보는 주니어 보드의 얼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미션을 보니, ① 조직 상하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 ② 업무개선·고객만족도 향상 등 우리실 혁신 선도 역할입니다.

▶ 주니어 보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부처마다 유사한 목적과 형태를 가진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실의 주니어 보드는 보다 Networking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조정관실, 기획단실에서 혁신 파급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기관으로 부터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들의 비율도 많고 인사이동 등을 통한 변화도 적지 않은 기관의 성격상 조직의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역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익숙한 것로부터의 결별은 조금은 긴장되고 약간은 불편하지만, 설레는 일이 아닐까? 새미래



혁신한 개구리 이야기

어느 이름 없는 조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은 개구리들의 서식지였다. 연못에는 개구리 알을 먹는 붕어, 잉어, 가물치 등 다양한 어류들이 살고 있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 한 마리가 초여름이 되자 이 연못에 알을 여기저기에 낳고는 사라져 버렸다.

다른 알과 달리 개구리 알은 투명해서 알 속에서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엄마 개구리가 사라지자, 연못에 살던 가지각색의 어류들이 나타나서 알들을 먹어 치운다. 동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는 것을 본 알속에 있는 개구리 새끼는 겁에 질려있다.

마침 엄마 개구리가 곁을 지나가자 엄마 살려줘요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엄마 개구리는 못 들은 체 지나쳐 버린다.

알속에 있는 새끼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알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찾아도 문이라고 생긴 것은 없다. 벽을 두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밤이나 낮이나 쉬는 시간도 없이 한곳을 집중 공략을 했다. 그러다 보니 벽이 많이 얇아졌고, 주둥이는 전보다 훨씬 강해져서 벽을 두드리는 것도 조금씩 쉬어졌다. 드디어 벽이 뚫렸다. 올챙이가 되어 세상밖으로 나온 것이다. 세상 밖으로 나온 동료들도 몇이 있으나, 개중에는 포기하고 알속에 갇혀있었고, 알속에 죽어 있는 동료들이 많았다.

세상은 넓었다. 알속에서 보았던 바깥세상보다 훨씬 넓었다. 그러나 안전할 수는 없었다. 메기라는 녀석이 와서 갑자기 옆 동료를 잡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피하기는 했지만

언제가는 자기에게도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속에서는 안심할 수 없어, 물 밖으로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 올챙이는 한참동안 고민하다, 물밖에 나가면 꼬리가 필요없고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먼저 꼬리를 없애기 시작한다. 꼬리를 풀에 비벼 닦게 하였다. 처음에는 피도나고 아프기도 하였으나, 이를 악물고 계속 꼬리를 풀에 비벼 닦게 한다. 꼬리가 줄어들니 헤엄치기가 곤란해진다. 그래도 꼬리대신 몸부림치면서 유지해 나간다. 꼬리가 짧아질수록 몸부림은 더해간다. 어느날 꼬리가 짧아지면 질수록 몸에서 이상한 것이 나와 나름대로 몸을 유지해주는데...

몸에서 나온 그 이상한 것은 다리가 되었고, 다리를 이용해 계속 헤엄을 하다보니 물갈퀴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메기가 공격할 때는 물 밖으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들이 앞에서 깨어나라.. 개굴, 개굴, 개굴....

올챙이들아 네 몸을 잘라 변산하라... 개굴, 개굴, 개굴...

네 몸이 힘들고 아파도 참아라.. 개굴, 개굴, 개굴...

과거에 도움이 되었던 꼬리도 이제는 잘라버려라...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혁신이다...

개굴, 개굴, 개굴..., 혁신 혁신 혁신... 새미래



통합적 시각에서의 사회분야 정책 수립 및 조정 추진 - 사회정책심의관실 신설 -

지난 9월 2일 사회문화조정관살내 조직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심의관실, 노동여성심의관실, 환경심의관실, 교육문화심의관실이 사회정책심의관실, 복지여성심의관실, 환경노동심의관실, 교육문화심의관실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사회정책심의관실(심의관: 이병진)」의 신설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은 예전과 달리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 내에서도 심의관실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양극화 현상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정부적 현안에 대해 통합적·종합적인 시각에서 능동적으로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정책심의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정책심의관실 내「사회총괄과(과장: 김원득)」는 국정현안조정회의의 운영, 사회문화조정관실 총괄업무, 건강·질병대책, 여성취업 종합대책 등 주요현안을 담당하고, 「사회정책과(과장: 전병왕)」는 중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현안(양극화 대책, 노인요양보장제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재정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식품안전과(과장: 장덕진)」는 최근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안전·식품위생 관련 종합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심의관실은 향후 대두될 중요한 사회분야 이슈에 대해 어느 특정부처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중립적·통합적 시각에서 정책조정 및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새미래

정보관리 연구모임

높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하늘의 별들이 예쁜 계절.....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 연구모임을 소개하게 된 것은 계절과 정말 딱 맞는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가만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처럼, 항상 그 빛을 발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이제부터 정보관리 연구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

05년 상반기, 정보화 전문가 육성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전문교육을 받은 실무관 2명을 주축으로 정보관리 연구모임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직후인 지난 6월말 연구모임을 처음 계획,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회원모집 등을 거쳐 9월30일 첫 창단식을 가졌고, 한 달에 두 번, 격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재는 교육내용 전파에 중점을 두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번의 연구 모임을 가졌으며, 모두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활용도가 높은 포토샵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미선 씨와 김선희 씨께서 하반기 교육생으로 발탁되어 신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은

- ① 컴퓨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연구
- ② 포토샵, 웹디자인, 파워포인트 등 관심도가 높고 실제 업무활용빈도가 높은 분야중 심 교육 및 실습
- ③ 최근 웹디자인 기술 동향 및 트렌드 정보교환
- ④ IT 정보화교류 및 학습

등이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모임을 통해 개개인 능력 향상으로 인한 국무조정실 정보화 발전에 기여함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생긴 연구모임이지만 다들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연구모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호회에 등록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빠른 정보화 사회.... 한걸음 빠르고 쉽게 접근해 나아가 우리실 정보화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정보관리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미래

※ 정보관리 연구모임 현황

- 회장: 유정미
- 총무: 반송희
- 간사: 임종명
- 회원수: 20명



힘든 일과중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어 주는 능력...



〈총괄심의관실 실무관 반송희〉

칭찬 릴레이를 통해 홍윤식 국장님께서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해주셨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칭찬하려는 지금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국조실 분들 모두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누구를 칭찬해야 할까... 국무조정실에서 긴 기간 근무하지 않아 모르는 분도 많고, 오히려 부족한 글재주로 인해 안한 것만 못한 칭찬이 될까 걱정스럽지만 모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저의 칭찬 릴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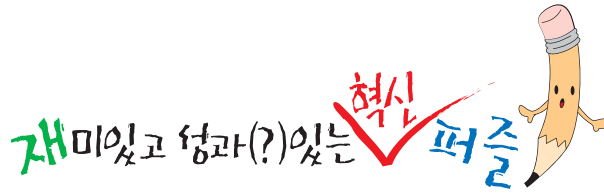
이자리를 빌어 칭찬과 고마움을 밝히고 싶은 분은 총괄심의관실에서 근무하는 반송희 실무관입니다. 반송희 실무관과는 벌써 2번째 같은 방에 근무하고 있지만 한번도 힘든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30년사’ 발간을 준비하면서 많은 문서작업을 해낼 때에도, 국회·청문회 등으로 밤을 꼬박 지낸 다음날에도 항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힘든 일과중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반송희 실무관의 능력은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행사 때마다 발휘하는 탁월한 디자인 감각과 정보화 능력도 우리 국무조정실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과 밝은 표정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반송희 실무관에게 칭찬릴레이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의관실 사무관 정은영〉 새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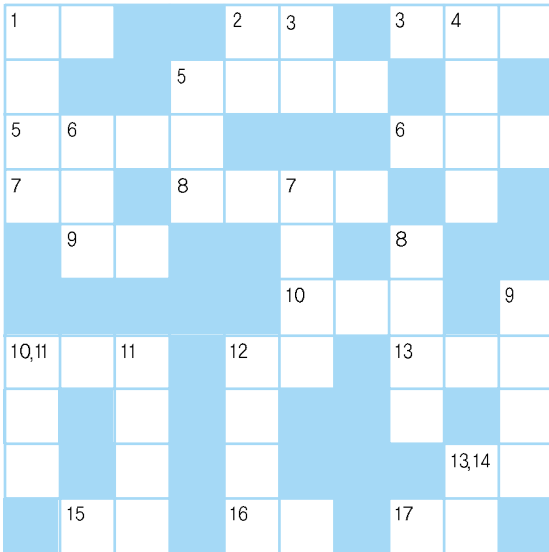


※ 지난달에는 여름 휴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혁신퍼즐에 참여치 못하신 것 같아 이달에 다시 올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퍼즐의 컨셉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혁신의 과거를 돌아본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4회에 걸친 혁신퍼즐 문제 중 상당수를 재구성하였구요
(정부혁신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혁신낱말 퍼즐 역시 1회용이 아닙니다. 복습시당~)
새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실 관심사항 및 이슈 등 몇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혁신관련 용어를 퍼즐문제로 구성하고자 어거지로 엮다 보면 정말 머리에 쥐(머리 밖으로 나간 고양이)를 찾습니다.
@.@가 나기도 합니다.(저의 16비트 머리로 썸(사실은 많이... ^^))
혁신퍼즐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국무조정실 주니어보드 소식지의 혁신낱말 퍼즐이 우리의 혁신 분위기 확산과 혁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 유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O^

〈혁신마당〉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1회 퍼즐 세로 20번 참고)

4. 이것의 홈페이지는 www.epov.go.kr입니다. 행정자치부에도 ○○○○본부장이 있습니다.(1회 퍼즐 세로 1번 참고하세요)

5. 개별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8.19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 국무조정실 주니어보드팀의 이름입니다. 다 아시지요?

7. 조롱박이나 동근박을 반으로 쪼개 만든 작은 바가지로 일명 표주박, 표단이라고 합니다.

8. 심사평가심의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하나로서 정책'○○○○'는 정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답을 다 알려주네염 ^^)

9. 계단...층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여러 턱이 지게 만들어 놓은 설비

10. 뉴스 말미에 기상캐스터가 '지금 ??지역에 호우○○○가 발령중이고 88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주의'하도록 알리는 '보'도를 말합니다.

11. 여러 엽기송의 원조인데요...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좋아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송고한 내용으로서 일명 '말뚱송'이라고도 합니다. 뻘~라~바~○○○~ 보고 싶니 당근~, 생각나니 당근~, I love you 당근 당근~당근~당근~, 조아하니 당근~, 사랑하니 당근~ ♪ ♪

12.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경우의 심리상태...역시 범서는 어려워... '미필적○○'...더 어려워...이렇게 어렵게 풀이를 쓰고 싶은 마음에 ○○는 없었습다...그럼...과실인가?

【가로열쇠】

1.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여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아○○
2. 매우 '성'하게 유'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O^
3. 항해하는 배의 키를 잡는 사람. 일명 '키잡이'인데염...정부혁신, 행정개혁 등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고 성과있는 정부'를 지향하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과거의 '성장 견인차' 역할 보다는 비전·방향제시자 (○○○로서의 역할), 갈등조정자의 역할이

13.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혁신세상에서는 '가장 유능한 대국민 서비스맨'으로 정의됩니다.(1회 혁신퍼즐 세로 16번 참고)
14. 이번에 외교안보심의관실에서 '남북통일○○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간만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30만 갈아서는 더 점수차를 내고 싶지만...월드컵 본선에서 더 많은 골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프레레 감독님...진짜 월드컵 경기때는 우리가 넣는 골에 대해서는 겸손하지 맙시다!!(다만 우리가 먹은 골에 대해서는 한 없이 겸손해도 됩니다...O 이면 더 좋구요~)
15. 제도와 방법, 조직이나 품성 따위를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것...나의 작은 변화가 'OO'의 시작입니다.(1회 OO퍼즐 가로 8번 참고)
16. 씨족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대기업들의 경우 'O'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7. 우리실 국가○○인프라구축추진단에서 '정부업무등의○○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결실이 금년 정기국회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미래 팀원이자 HRD에서 'OO기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김모군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헛탕~근데, 장가 좀 가겠!!

【세로열쇠】

1.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지난 혁신퍼즐 2회의 18번을 참고하여 주시길..BSC는 우리 말로 균형'○○○○'를 의미합니다.
2. 금번 8.15 광복절은 광복 60년이자 천주교에서는 4대 축일중 하나인 성모승천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 그리고 평화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 지난 5.6월 국무조정실 업무협약팀 평가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부서는 교육문화심의관실과 일반○○○심의관실입니다. 부상으로 상금을 두둑하~♪
4. 공무원들간 '토론의 장'을 의미하는데여, 1회 퍼즐의 가로 10번을 참고하세요.
5. 이는 현행 전시국제법상 전투행위의 결과로서, 적으로부터 압수 또는 억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여(출처 : 국제법 교과서)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얻는 노획물이라고 해도 될 것을 법서에서는 뭘 그리 어렵게 쓰는지...(무한 경쟁 사회, 혁신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 무엇이 있을까요?)
6. 학식·견식 또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계층...구어체에선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신문·잡지 등에서는 가끔 보이는 용어입니다.
7. 캐나다의 퀘백지역의 분쟁, 스리랑카의 타밀반군 활동, 티벳 등 중국 소수민족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들 ○○○운동은 중앙

정부에 대항하는 이질적 집단의 정체성 추구의 한 방법입니다.(우리 국조실맨들은 국내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이슈에도 많은 관심과 상식이 있으시기에 이 정도 쯤이야..)

8. 각 기관별 04년도 ○○○○제도 운영실태평가에 의하면 우리 국조실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혁신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다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1회 퍼즐 가로4번을 참고하세요)
9. 사자성어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책망하라...미리 미리 준비합시다.
10.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해전지중 하나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경상남도 고성 앞바다에서 정박중인 왜의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을 모두 격파한 ○○○해전은 1592년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11.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연말연시에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12.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성과주의의 확립과 ○○○○입니다. 국민을 수혜자가 아닌 ○○○으로 보고 항상 ○○○○을 위해 부단한 자기변혁의 노력을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2회 혁신퍼즐 24번을 참고하세요)
13. 축하를 위해 부르는 노래...아~ 쉽다...

※ 정답을 맞추어 국무조정실 주니어보드에게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명을 선발하여 심판위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새미래



주니어보드



등록일: 2005년 3월 2일

발행일: 2005년 9월 30일 통권7호
(월간 비매품)

발행인겸 편집인: 새미래(주니어보드)
이창수(팀장), 김진곤, 김세용, 권용식,
신영진, 권혜린, 진정용, 유정미, 이순아,
육현수, 진선미

발행소: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국무조정실



편집후기

청사 주위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제법 노랗게 변했습니다.

은행나무, 정말 버릴게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구워먹고 삶아 먹고 또 한약재로도 쓰이고 잎은 피를 맑게 해주는 최고의 약재료로 사용되죠

그간 주니어보드의 활동이 은행나무처럼 하나도 버릴게 없는 활동이기를 바라면서 이번 호를 편집해 봅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 때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의 무거운 리어카를 끌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작은 시간과 힘이 다른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직원들께서 모아주신 1% 나눔 운동의 모금액으로 지난 9월 14일 장관님실에서 6명의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 소정의 성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소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된 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성금을 모아주신 직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호부터는 해양수산부로 복귀하신 서진희 사무관님에 이어 산업심의관실의 권혜린 사무관과 진정용 사무관께서 새로이 주니어보드 멤버가 되셨으며 그간 주니어보드의 궂은 일을 도맡아 보시던 김세용 선생님은 우리실 혁신의 심장부인 혁신팀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으며, .. 두분 모두 혁신의 선봉에 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새미래